보성군, 대한씨름협회와 전국장사 씨름대회 업무 협약 체결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보성다향체육관서

올해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 동안 개최 예정

보성군은 10일 보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씨름협회와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이광수 보성체육회장, 김경열 보성군씨름협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신설한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보성다향체육관에서 열린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성군에서 3년간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장사씨름대회는 1,200여 명의 선수단이 방문하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이며, 참가 규모는 초·중·고·대·일반부·여자부 등 개인전 6종목, 단체전 5종목이다.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과 맞물려 보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 및 경기는 방송 생중계를 통해 방영되며, 보성차와 보성세계차엑스포도 함께 홍보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국장사 씨름대회의 첫 시작을 보성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돼 뜻깊다. "라며 "이번 대회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거리 확보,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씨름협회 황경수 회장은 씨름선수로 출발해 이만기, 이준희, 이봉걸, 강호동 등 수많은 천하장사들을 배출한 지도자이다. 현재는 씨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행정가로 활동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샌디에이고 항만운영 사례 벤치마킹

섬박람회홍보단, 항만청 방문…청장 면담 후 물류관리 운영 등 배워

연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수시 홍보단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샌디에이고 항만청을 방문했다.

우수 항만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개항 100년을 맞는 여수항 개발계획에 접목시키고 섬박람회를 홍보한다는 목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시의회의장 등 홍보단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샌디에이고 항만청을 방문해 프랭크 얼타손 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샌디에이고 항만의 역사와 항만부지 운영상황, 주요 수익사업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직접 항만 현장을 돌아보며 운영상황을 살폈다.

또한 홍보단은 항만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섬박람회 홍보활동도 펼쳤다. 항만청장과 직원들을 박람회에 초청하는 한편 홍보물을 나눠주며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알렸다.

이날 프랭크 얼타손 샌디에이고 항만청장은 "몇 년 전 서울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다"며 "우리와 같이 항만을 가지고 있고 해양경관도 우수한 여수시를 꼭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항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물류운송뿐 아니라 크루즈산업, 컨벤션센터 운영 등 여수가 벤치마킹해야 할 점들이 아주 많았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꼭 다시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영규 시의회의장도 "샌디에이고 항만청이 항만기능만으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개항 100주년을 맞은 우리 여수항의 미래100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고흥군, 인구 10만 염원 '고흥 올래 콘서트' 개최

오는 15일 올해 첫 대형 콘서트 팡파르…선착순 무료 관람

고흥군은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박지성 공설운동장에서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을 염원하는 '고흥 올래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홍보하여 고흥의 가치 확산을 통해 관광객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흥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자리로 기획됨과 동시에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고흥 올래 콘서트는 트로트 꿈나무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이찬원, 조항조, 에일리, 진성, 영지(버블시스터즈), 무룡(불타는 트롯맨), 나영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최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으로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콘서트는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며, 군은 공연 당일 유자차 무료 시음과 유자빵, 석류, 다시마, 들기름 등 2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홍보,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올래 콘서트는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만끽할 수 있는 품격 높은 공연으로 고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콘서트에 많이 오셔서 고흥의 힘찬 도약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에서 올해 개최하는 첫 대형 콘서트인 만큼, 고흥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라인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행사 대상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유치 '총력'

올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여행 성지로 박람회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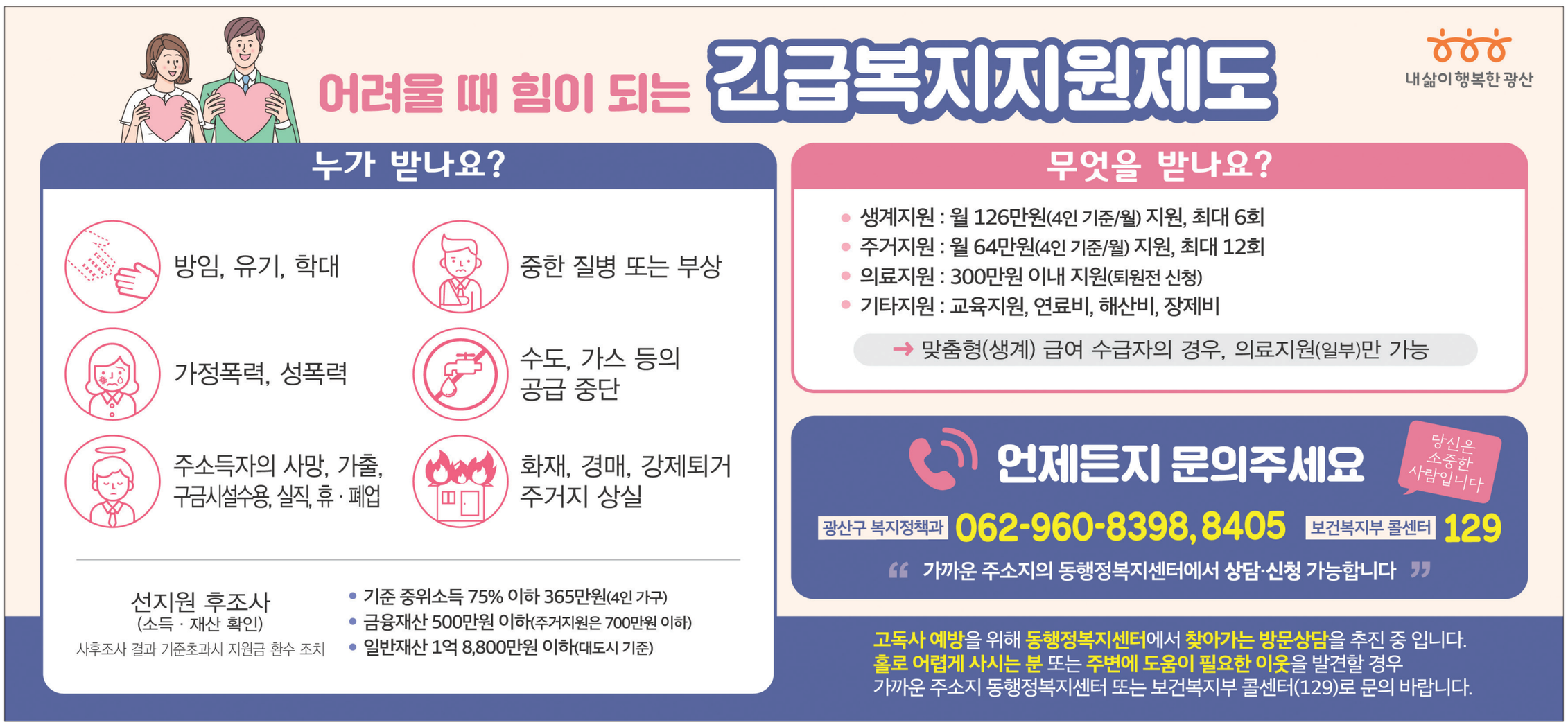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는 최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붐 조성을 위한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조직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50여 개 여행사가 참석했으며, 2023정원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여행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여행사의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위에서는 황영진 관람객유치부장이 박람회 전반 및 주요 콘텐츠에 대해 설명하고 순천시 관광과에서는 박람회와 연계한 도심 관광지와 여행지를 소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여행사 관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감과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꽃과 정원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도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 라며 "800만 관람객 유치와 박람회 성공을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와 여행사에서 앞장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률 92%를 상회해 막바지 개막 준비가 한창인 2023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개최된다.

조직위는 ▲재해시설인 저류지를 만남과 소통의 해방구인 정원으로 바꿔낸'오천그린광장' ▲자동차만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가 잔디길이 된'그린아일랜드' 이색적인 콘텐츠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 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